"여성 지위 향상 함께 힘 합쳐야"

김동연 도지사,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참석

김동연(앞줄 왼쪽 다섯번째)경기도지사가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사진 : 수원시 제공)

김동연 지사가 새해 경기지역 여성단체 임원들을 만나 "저출생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문제는 개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도정 전체가 한 목표를 향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수원 호텔리츠 컨벤션홀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한 '2023년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세계여성의 날이 3월 8일로 정해지게 된 것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시위를 한 데서 비롯됐다. 여기서 빵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주장이었고, 장미는 그때까지 미국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의 정치 참정권을 달라는 주장이었다"며 "지금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주장했던 빵과 장미가 과연 우리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질 높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복합·중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이현우 기자 leeow71@hanmail.net

인천시, 소비자 선정 최고의 정책브랜드 대상

민선8기 시정목표 '초일류도시 인천'

민선8기 인천시 시정목표인 '초일류도시 인천'이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정책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2023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초일류도시 인천' 브랜드로 정책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인천의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이 국제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래 두 번째 '대상' 수상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산업전반에 걸쳐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는 상품 및 기업의 브랜드를 평가해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발전과 국가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대상은 지난해부터 시장정보들을 활용해 사전 기초조사를 진행해 후보브랜드를 선정했고, 소비자 리서치를 진행 소비자 직접투표 결과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선정됐다.

정책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초일류도시 인천(The Great City Incheon)'은 국내·외 일류도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도시를 가리킨다. '초일류도시 인천'은 '5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초스마트시티를 기초로 문화, 역사, 환경, 교육 등의 가치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행복 도시'를 지향한다.

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민선8기 시정목표로 정하고 '균형도시, 세계도시, 소통도시,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bo.com

강수현 양주시장-임태희 도교육감 면담

주요 교육 현안 신속 추진 협력 요청

강수현 양주시장이 임태희 도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 : 양주시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은 2일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더불어 과밀학급 지역 학교 적기 신설 등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양주시의 교육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수현 시장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 지역 학교 적기 신설, △IB 프로그램 추진, △천보초 이전적지 활용을 위한 지역협력 등 주요 교육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강 시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백석 신도시 조성과 양주 역세권 개발 등 도시성장이 이뤄지며 지속적 인구 유입에 따른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옥정·회천신도시 주민의 오랜 숙원인 '과밀학급 지역 학교 적기 신설'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시 학교 신설이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과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의 경우 입주 전에 학교 건립이 완료되어 학부모 등의 불안이 불식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읍면 지역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장흥면 삼상초 중학군의 고양시·의정부시 공동학구 지정과 읍면 소재 학교의 IB기초·시범학교 우선 선정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가칭)옥정2초로 신설 대체이전하는 천보초등학교 이전적지의 교육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교육 협력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과밀·과소학급 문제, 공동학구 지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며 "양주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양주/김환구 기자 hgkim230@naver.com

안양시, 청주 인재 육성 평생직업교육 성과 확산 포럼

안양시가 지역 청주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31일 평촌 아트페컨벤션에서 '평생직업교육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황은광 대림대학교 총장, 권민희 연성대학교 총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전기형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HiVE 사업 실무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대학 직업교육 성과 확산 및 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지난해 HiVE 사업의 성과와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가 함께 이뤄졌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청년은 물론 신중년, 노년층에 이르는 평생직업교육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이끄는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대림대, 연성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가 공모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2024년까지 안양시 HiVE사업으로 지역특화분야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올해 대림대학교는 응용SW 전공과정 및 AI시스템과를, 연성대학교는 뉴미디어콘텐츠 전공과정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학습자중심 프로젝트 기반 학습인 지역특화분야 PBL 교육과 산업체 전문가 강의를 통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학과 지역 인재 인증제(HiVE-IN)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역 기업에 취업 시 우대하는 등 지역 내 취업과 정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 HiVE 평생직업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HiVE센터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홈페이지(https://anyanghive.daelim.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이창희기자 lyh@hyundaibo.com

현대일보
www.hyundaibo.com
이메일 hdib@hyundaibo.com
㉾ 22327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61 (도원동)
발행·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대표전화 (032) 8813-114 (031) 5320-114
회장실 070)7458-0012 편집국장 070)7458-0016
총무국 070)7458-0011 편집국 070)7458-0017
광고부 070)7458-0114 편집부 070)7458-0018
판매부 070)7458-0014 사업부 070)7458-0019
팩 스 (032) 8813-119 정경부 070)7458-0015
등록번호-인천 가 00008 등록
등록일자-1990년 1월 24일
창간일자-1990년 1월 30일
※구독료 월 15,000원 1부 700원 구독신청·광고문의 (032)8813-114

편집=정다정 기자 [illegible]

인천시의회 상임위 활동 '지상중계'

환경공단 승기사업소 등 방문 현안 점검

산업경제위

정해권 위원장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2일 연수구 소재 인천환경공단(승기사업소·송도사업소)과 인천종합에너지(주) 등을 방문해 현안들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를 찾아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지난 1986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2007년 증설됐고, 현재 처리용량은 1일 27만5천t으로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 등 일부 지역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어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도 시찰했다.

송도사업소는 1일 처리용량 540t의 소각시설과 1일 처리용량 200t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여기에 스포츠센터, 골프장, 캠핑장 등 주민편익 시설도 관리하고 있다.

또 이날 인천종합에너지(주)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열 공급시설 등을 살폈다.

지난 2004년 GS에너지(70%)와 인천시(30%) 출자로 설립된 인천종합에너지(주)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원도심 등의 약 7만 3천 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정해권 위원장은 시찰 중 임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운영 중인 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서구 소재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노을진캠핑장·제3연륙교 등의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제도 정비 안정적 채무관리 기반 마련"

행정안전위 신동섭 의원

인천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를 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신동섭(국민의 힘, 남동구4·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채무관리의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 등 채무 관련 사항을 분리해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조례의 경우 재정운영과 관련한 13개의 조례가 통합돼 있어 시민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조례안의 구체성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적시성을 확보하고, 인천시의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지난해 강원도의 채권 지급보증 거부 여파로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도래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행 재정 운영 조례의 면밀한 검토로 조정교부금,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 등도 세분화하도록 추진해 시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필요"

문화복지위 김유곤 의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국민의 힘, 서구3) 의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김유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7.7%에 불과했던 인천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이 그해 11월 67.9%로 상승했다. 학교 운동장이 524곳 중 444곳(84.7%), 실내 체육시설은 488곳 중 249곳(51.0%) 등이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군·구 주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학교 실내 체육시설 추가 개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교육청이 개방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유곤 의원은 지난달 19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비해 학교 내 체육시설 개방률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TF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 신규 건립보다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보상보험 및 시설물 복구 비용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유곤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주민들의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bo.com